

◇ 폐암 절제술후의 생존율

김영진, 이철주, 소동문, 류한영, 노환규, 문광덕, 최호, 김정태, 강준규,  
홍준화

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**배경 및 목적** :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교실이 개설된 후 1994년 5월 첫 폐암 절제술을 시행하여 1998년 7월까지 50개월동안 시행되었던 폐암 절제술 환자의 생존율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**방법** : 1994년 5월부터 1998년 7월까지 50개월 동안 시행된 폐암 절제술 환자중 의무기록이 정확하고 추적 관찰이 용이했던 96명을 대상으로 성별, 나이, 위치, 암세포의 종류, 병기별, 수술 방법에 따른 생존율을 kaplan - meier 방법을 이용하였고 Cox - Mantel test로 통계 결과분석을 실시하였다.

**결과** : 대상환자 96명중 나이는 25세부터 77세로 평균 57.1세였으며 남자 75명 [78.1%], 여자 21명 [21.9%]이며 우측 병변이 62례 [64.6%], 좌측 병변이 34례 [35.4%]였다. 암세포 종류별 빈도는 상피암이 50례 [52.1%]로 가장 많았으며 병기별 분포는 stage I b가 40례 [41.7%], stage III a 18례 [18.8%], stage II b 12례 [12.5%]순이었다. 수술방법은 전폐적출술 45례 [46.9%], 폐엽절제술 42례 [43.8%]였다. 96명의 환자중 현재까지 16명이 사망하였다. Mean survival time은 40.02개월 이었으며 병기별로 stage III a가 36.07개월, 암세포별로는 상피암이 38.67개월, 수술방법은 전폐적출술이 37.78개월로 가장 짧았다.

**결론** : 본연구의 결과로는 성별, 나이, 위치, 암세포의 종류, 병기별, 수술 방법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. 따라서 더 많은 환자의 계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.

책임저자: 김영진 (아주대학교) 발표자: 김영진 (아주대학교)